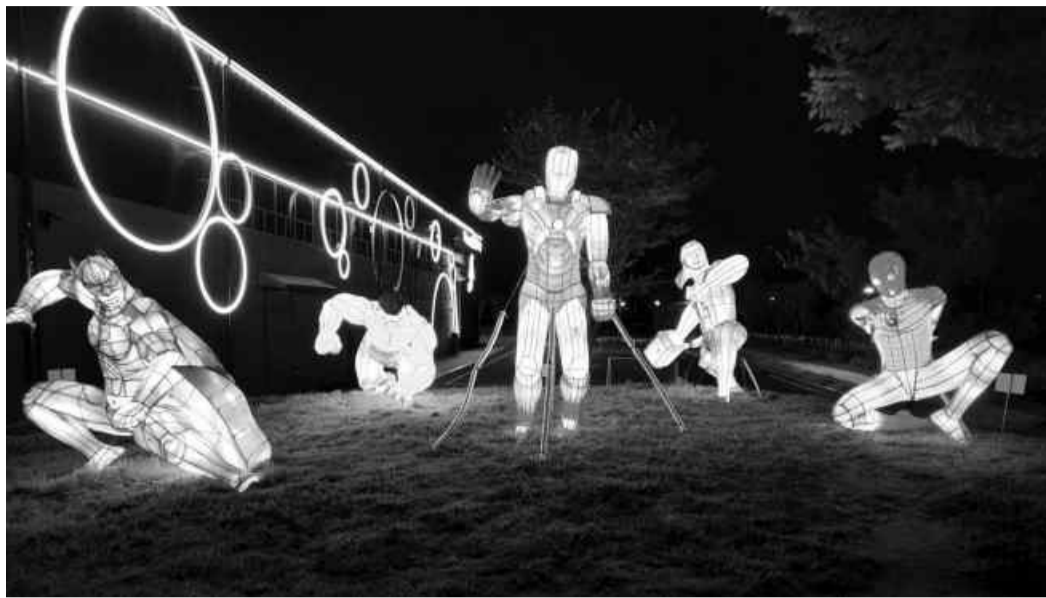


내장산 문화광장 빛나는 캐릭터 총출동

편백나무숲에 LED 연출
어벤져스·공룡 유등 16점 설치
9월 25일까지 2달간 전시 운영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천사 히어로즈와 편백나무 숲에 LED로 꾸민 야경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읍시 제공>

“형형색색 불빛이 캐릭터가 총출동-”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천사 히어로즈와 편백나무 숲에 LED로 꾸민 야경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방문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정읍시는 전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4000만원(도비)을 들여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어벤져스와 공룡 캐릭터 유등 16점을 설치했다.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설치된 야간조명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공룡과 만화 속 히어로 캐릭터를 색다른 연출로 표현, 눈길을 끌고 있다.
유등은 9월 25일까지 2달간 전시 운영되고,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점등한다.
천사 히어로즈 주변에는 어린이부터 전 연령대에 인기 있는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토르, 헐크 등 어벤져스 유등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끈다.
문화광장 외곽 편백나무 숲에는 공룡 캐릭터와 공룡알 유등 10점을 설치, 이색적인 풍광을 자아낸다.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캐릭터의 유등을 설치했다”며 “한여름 밤 감성과 낭만이 가득한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대대적 조직 개편...미래산업 체계 역점



남원시가 민선 8기 시정의 문화와 미래산업을 이끄는 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효율적 조직운영을 이루고자 시 행정조직의 대대적 변화와 개편을 예고했다. 이는 행정조직을 원점에서 분석해 일하는 조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경식(사진) 시장은 그간 국가정책 등 분석을 통한 남원시의 지방재정 강화를 목표로 남원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분석실 신설과 농산물 수출지원팀 및 시민안전국 개편,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조직정비의 실행방안으로 ‘정책 일몰제’, ‘규제개혁’ 및 위임가능 사무에 대한 적극 발굴을 통해 불필요한 일을 줄여 가용인력을 남

원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업무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강조했던 바일 방식 조직개편이 아닌 시민과 공감하고 시민 편의의 행정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조직 개편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남원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은 조직의 빠른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중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문학의 한국문학사적 위상’ 학술발표회

정읍 출신 문학인들 참석 성료

정읍문학의 한국문학사적 위상을 논의하는 학술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읍문화원은 최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정읍 출신의 강인한 시인, 이준관 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문학의 한국문학사적 위상’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고전’에서 ‘현대’까지 정읍문학을 종합한 학술적 조명으로 한국문학의 기원이 정읍에서 시작됐음을 확인하고, 인문도시 정읍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고자 기획됐다.
발표회는 정읍문학의 사적·갈래별 개관, 시, 소설, 고전 시가 등 4개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청중과의 질의응답으로 마련됐다. 사회는 김화선 교수(배재대)가 맡아 진행했다.
최명표 문학평론가의 ‘정읍 문학의 어제와 오늘’ 주제발표로 시작해 ‘정읍출신 시인의 시 세계’(유성호 한양대 교수), ‘정읍 출신 작가의 소설 세

계’(방민호 서울대 교수), ‘정읍을 배경으로 한 고전 시가의 문학교육적 가치’(한창훈 전북대 교수) 등의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유성호 한양대 교수는 “출향문인은 고향에 대한 지극한 회귀의식과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다”며 “이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출향문인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포용한 느슨한 연대를 만든다면 정읍문학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민호 서울대 교수는 “최남선, 이광수 소설 ‘허생전’(1923년)을 통해 일제에 대한 변절이 타당했음과 변절에 대한 죄책감을 증산교적 해원상생의 논리로 풀어 냈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정읍문화원장은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정읍문학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시도되고, 정읍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정읍 문학이 앞으로 발전하는 기회의 장으로 승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예술약방, 치유문화환경 조성 업무협약

문화도시 추진 기반 확보 협력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최근 예술치유전문기업 (주)예술약방과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치유문화 확산과 치유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4차 문화도시지정’을 위해 예비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설정환)는 문화도시 추진 기반을 확보해 문화도시사업의 추진 효과와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오주현 예술약방 대표는 지난해 3차 예비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치유문화마을로 지정된 고창읍 호암마을을 무대로 문화예술치유자원발굴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양측은 ▲치유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 공유 및 협력 ▲지속가능한 치유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공유 및 협력 ▲지역 치유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

로 약속했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해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 18개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고 문화도시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는 고창군자원봉사센터,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학원 등과 협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전북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8월4일까지 위탁 운영 기관 모집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문제가 성인기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체계적·장기적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생을 건강하게, 학교를 활기차게, 모두가 행복하게’를 비전으로 ▲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건강취약 학생 지원 및 건강상담 등으

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도 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의 공모 지원 자격은 아동·청소년 건강조사와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일 기준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이다. 또 대학병원과 긴밀한 연계로 통계분석 및 건강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8월4일까지 신청서, 운영사업 확약서, 사업계획 등의 서류를 구비해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건강교육담당으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건강관리로 학생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면서 “역량있는 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남원시가 ‘남원형 주민자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남원시에 오는 8월5일까지 2주간 ‘남원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이 실시된다.

시는 2022년 본격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이어 관련한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주민자치회 설치를 희망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향후 주민대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공개추첨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구성하게 된다.
‘남원형 주민자치회’는 도·농 복합도시인 시 여건에 따라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으로 구성·설치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향로 903-6(오목리9)